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건설산업

김문겸 | 대한토목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



기술과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한다. 지금의 패러다임으로서 스마트 혁명은 전 산업에 걸친 융합으로 이어지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 강화로, 각 산업에 대한 기술 혁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시장의 수요 자체가 시장 변화를 견인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전개는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며,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고려했을 때,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력이 시급한 오늘이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미래 시장 창출 노력은 국가 융성과 미래 사회 진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미 건설산업은 ICT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융합하며 첨단 산업으로의 첫발을 내딛고 있고, U-city, 스마트 라이프라인 사업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시장 창출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신시장으로의 개척이 필요하다. 진출 지역과 업종의 다변화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수직 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그리고 금융, 법률, 문화 등의 인문·사회적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건설산업의 역량 강화 또

한 중요하다. 최근의 생활형 SOC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교통 혼잡, 제한적 산업 시설 운영 등의 형태로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미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해외 나라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노후 SOC 개선, 재해 방지,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 결과 경제 회복에 상당 부분 파급 효과를 받고 있다. 효과적인 민간 투자 모델을 개발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성 중심에서 SOC의 유지 관리 중심으로 기술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SOC로 진화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융성과 직결된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바로 통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북한의 열악한 SOC 환경으로는 산업 시설의 진출이나 SOC 개발 사업의 전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분산되어 있는 국내의 북한 SOC 시설 관련 데이터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보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대략적인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다.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듯이, 건설산업 스스로가 얼마나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CERiK